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2년 5월 1일 (일) 제 816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나카에 요이치·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어머니주일
설 교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 11~24>



趙顯奎 牧師 (別府教会)

성경을 보면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부모의 유산을 미리 받고 떠나, 그 돈을 다 탕진 한 후에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 줍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결같이 아들을 사랑하고 걱정합니다. 아들이 나간 그 이후 매일 같이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이 잘 있었는지? 사고라도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보다 돈을 생각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들이 멀리서 보였을 때, 화부터 냈겠지요. ‘너 돈은 다 어디다 썼어?’라며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멀리서 보고 먼저 달려가 안아주고 하인들을 시켜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란 이렇습니다. 늘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잘 표현한 한 가지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3살 때 아이는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전능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5살 때 “아버지는 전지하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다.” 6살 때 “아버지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똑똑하다.” 8살 “아버지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것도 있다.” 12살 “아버지는 아무 것도 모른다. 옛날 사람이라 아는 것이 없다.” 20살 “아버지는 구제 불능이다. 뒤떨어진 사람으로서 옛날 생각에 매여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30살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중요한 것으로서 인정할 만한 것이 조금은 있다” 35살 “아버지께 여쭙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때 아버지의 의견을 꼭 묻고 싶다.” 40살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생각은 어떨까? 아버지의 지혜가 그렇다” 50살 “아버지는 확실히 훌륭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지혜를 미처 좀 더 많이 들어 들길”

여러분 이 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40대인데, 이 글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라면 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자녀는 분명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한결같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지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이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부모의 학대로 자녀가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수 있을까? 믿기 어렵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아버지는 결국에 자녀에게 저주며, 자녀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아들을 사랑하였기에 사랑하는 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 이길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더 사랑하는 쪽이 희생하고, 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님께 더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내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주길 원합니다.

얼마 전 제 딸이 자신의 생일 선물로 풍선인형을 만드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은 작년 생일 때에도 사준 적이 있는 동일한 장난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또 살 필요가 없고, 그렇고 싶지 않았습다.

그러나 딸은 계속 그것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줬을까요? 사줬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은 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이 기뻐하는 모습이 좋기 때문입니다. 딸의 기쁨이 저희 기쁨입니다. 딸이 기뻐하는 것을 해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9-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서남지방회

대마은혜전도소를 방문 하나님 인도 따라 2,300평 토지 매입

4월 11일, 12일 서남지방회장 김성효목사, 김병호총간사와 함께 대마은혜전도소를 방문했다. 전도소가 2300평의 토지(평지 1000평, 삼림1,300평)를 매입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전도소는 지은지 100년이 넘는 집을 임대하고 있다. 입지는 좋아서 이즈하라 항에서 가까운 중심지이지만 건물이 노후해 2020년의 태풍으로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 집주인의 고집으로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수리 공사와 집세를 지불하는 것보다 새로운 장소를 찾는 편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러, 6월에 되거하여 7월부터는 당분간 목사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번에 매입한 토지는 쓰시마 공항에서 가까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원래 리조트호텔 건설이 계획되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부터의 "NO! 재팬" 분위기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에 의해 중지되었다.

매입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예배를 통한 사람과의 연결이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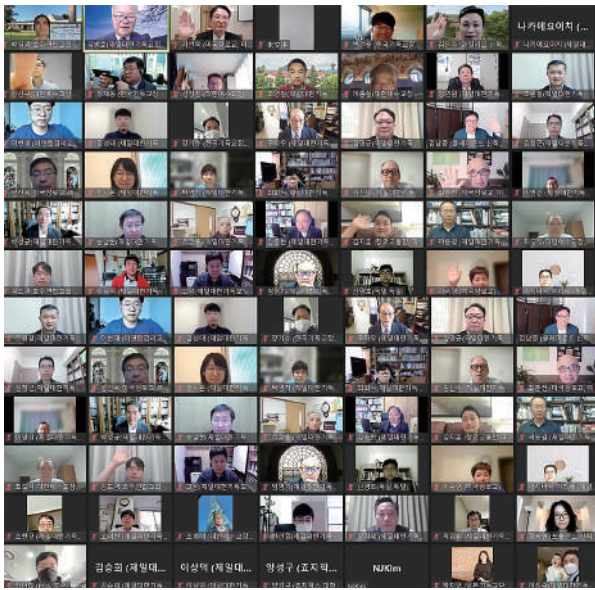
쳐서 기적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 하나를 보고하면 평당 3万円 이상하는 토지를 평당 1万円, 합계2200万円으로 매입한 것이다.

이제부터의 큰 과제는 갱지를 정리하고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대마은혜전도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복음 선교의 행보에 희망이 계속 나타나도록 제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회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보고: 서남지방회 서기 윤선박)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개최 제13차 미국 포틀랜드대회를 온라인으로

본 총회가 회원교단으로서 참여하여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교회로 있는 한인교회의 차세대 교육과 목회를 함께 나누며 공유



하고 있는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제13차 대회가, 미국 포틀랜드(뱅크버한인장로교회) 가지기로 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난 2022년4월19일~21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Zoom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가진 금번 대회는 모든 준비를 미국 현지에서 준비하였고 주제강의, 특별 강연 등도 미국에서 담당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스리랑카, 유럽 등지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등 70여 명이 참가하였고,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는 총회장 나카에 요이치목사를 비롯한 총회 임원과 교역자 30여 명이 참가하여 많은 배움의 시간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팬데믹 시대 교회 교육과 목회의 미래> (이사야11:1)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은주교수(아일리프신학대학원)가 <북미 설문조사에 따른 팬데믹 상황의 교회>, <팬데믹 상황에서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두번에 걸친 강연과 양성구교수(조지 폭스 대학교)가 <예수와 미학의 회복>, 김남중교수(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교육, 목회, 예배 전망: 놀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미 다가와 있는 팬데믹 시대에서 예배와 설교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시도와 적용에 대하여 강연하였으며, 이동우목사(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박사과정)는 특별강연을 통하여 그의 저서 <포스트 팬데믹, 메타교회가 온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다가올 교회의 변혁에 대한 심각한 위기와 준비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대회 3일째 마지막 순서로 가진 제13차 정기총회에서는 본 총회의 조영철목사가 회장으로, 김병호총간사가 총무로 선출되었으며, 금번 대회는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 대회를 가졌지만 제14회 대회는 2023년2월15일~17일, 한국 제주도에서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3차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포틀랜드 선언문

“제13차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는 2022년4월19일에서 21일까지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를 거점으로 ‘팬데믹 시대의 교육과 목회’ 라는 주제로 온라인을 통한 영상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됨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고백과 소망을 다음과 같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 우리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로서 문화, 언어, 인종, 그리고 이념의 경계를 넘어 서로 공존하며 돕는 목회를 지향한다.
-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아름답고 균형 있는 교회사역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즉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

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롬12:15) 사랑의 보살핌과 현대의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앙과 목회, 교육,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해왔는지 돌아볼 것이다.

- 우리는 생태적 위기를 경험하며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살롬’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변화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고 개발할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자연, 환경에 대한 책임과 그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 우리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변화를 주도하며 창의적인 소통의 공간을 창출할 것이다.
- 우리는 사회, 자연, 환경, 세계의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일에 교우들과 함께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우리는 다양한 교우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문화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관동여성회

제69·70회 정기대회 개최

신회장에 김혜진장로 (川崎) 선출



관동지방 교회여성연합회 제69/70회 정기대회가 3월21일(월) 西新井교회에서 9교회, 대의원 27명 중에 22명이 모여 개최되었다. 개최예배에는 이해숙목사가 <하나님의 치유>(행18:1-11)라는 제목으로 설교, 광은 주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회의는 각부보고, 임원개선. 예산안 심의 등으로 진행되어 승인을 받았다.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 會 長 : 金惠珍(川崎)
 - 副會長 : 李銀珠(横浜)
 - 書 記 : 李敏禮(西新井)
 - 副書記 : 安成美(横浜)
 - 會 計 : 李惠淑(東京)
 - 副會計 : 高喜仙(品川)
- (報告 : 李敏禮)



第69·70回定期大会
関東地方教会女性連合会
2022年3月21日 西新井教会

주부여성회

제62회 정기대회 개최

신회장에 이정자권사 (名古屋) 선출



지난 4월 12일(화), 나고야 교회에서 중부 지방교회 여성연합회 제 62회 정기대회가 4개 교회의 대의원 24명 중 22명의 출석으로 개최되었다. 개최예배는 채은숙 목사(오가키 교회)에 의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10:7~8)라는 제목의 설교와 축도로 마쳤다.

코로나의 재난 중임을 감안하여, 각부의 서면 보고를 사전에 받아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당일에는 회계 보고와 선거를 중심으로 의사를 진행한 뒤, 신회장의 기도로 회의를 마쳤다.

3년만의 대회였으며, 새로운 3명의 대의원을 맞이하게 된 은혜의 대회였다. 그러나 동시에 항상 있었던 성찬식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없었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작년에 비해 형태는 변했어도, 재개된 활동도 있으며, 성찬식과 만찬이 행해질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 會 長 : 李正子(名古屋)
 - 副會長 : 金恩淑(豊橋)
 - 書 記 : 尹惠丁(名古屋)
 - 副書記 : 兼松峰代(名古屋)
 - 會 計 : 金淑枝(豊橋)
 - 副會計 : 宋福姬(名古屋)
- (報告 : 尹惠丁)



관서여성회

제68·69회 정기대회 개최

신회장에 김인희권사 (교토) 선출



관서지방 교회여성 연합회 제68회/69회 정기대회가 3월24일(목) 오사카교회에서 12교회 45명의 대의원이 출석하여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서 허백기목사(교토남부교회)가 <예수의 죽음을 지킨 사람들>(눅23:44-56)의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회의에서는 각종 보고, 임원개선 예산안 심의 등이 승인되었다. 금번에 선출된 임원은 관서지방회와 보조를 맞추어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기를 3년으로 정하였다.

폐회예배에는 배정애목사(히라오카교회)의 <안심하라. 무서워하지말라>(마14:22-33)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 會 長 : 金仁姬(京都)
- 副會長 : 全早苗(大阪北部)
- 書 記 : 柳綏美(京都南部)
- 副書記 : 千末仙(京都)
- 會 計 : 姜志鮮(大阪)
- 副會計 : 申南烈(堺)

(報告 : 千末仙)



서부여성회

제35회 정기대회 개최

신회장에 양울자권사 (고베) 선출



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35회 정기대회가 4월 7일(목) 고베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 만연으로 대회를 열지 못했지만 올해는 감염 대책을 마련하면서 5개 교회에서 대의원 14명이 참석했다. 개최예배는 양울자부회장의 사회로 양영우목사(무코가와교회)로부터 '바울의 중보 기도' (에베소서 3:14-19)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이어서 성찬식이 함께 있었다. 유정혜회장의 개회사 뒤 개회선언이 있었고 대의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이시바시 마리에 전도사(전국여성회 총무)의 축사와 양양일 장로(신도위원장)의 보고와 협력요청이 있었다. 회의에 들어가, 총괄 보고와 결산 보고가 있었고 이어 임원 개선이 있었다. 차년도 예산이 승인되고 2022년도 활동방침안이 토의되었는데, 코로나 사태의 상황을 보면서 시행하기로 했다. 폐회예배는 양울자 신임회장의 사회로 한세일 목사(고베교회)으로부터 '마리아가 드린 향유' (마태 26:6-10)라는 설교 말씀후 축도로 마쳤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 會 長 : 梁律子(神戸)
- 副會長 : 尹豊子(神戸)
- 書 記 : 崔美惠子(武庫川)
- 副書記 : 黄英玉(武庫川)
- 會 計 : 金日淑(武庫川)
- 副會計 : 大山京子(川西)

(報告 : 尹豊子)



관서지방회

新井由貴목사 위임식 거행

재일 3세 목사로서 교토남부교회에 부임



2022년4월24일, 관서지방회 교토남부교회에서는 아라이유키목사 위임식을 거행하였다.

임시당회장 임명기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채은숙목사(오가키교회)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마태 4:23)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지방회장 대리 박영자목사의 사식으로 엄숙하게 시작된 목사 위임식은, 소개, 서약과 기도 및 선포로 이어졌다.

금번에 교토남부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아라이유키목사는 1981년 재일3세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부터학원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재일총회신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을 한 후, 2008년에 관동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고베교회에서 전도사, 동경가마타교회에서 부목사 및 담임목사로, 나고야교회에 부목사로 섬긴 후에 한국으로 유학하여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작년 가을에 일본으로 돌아와 이번에 교토남부교회의 청빙을 받았다.



KCCJ · CCJ선교협력위원회 공개강연회(2021년12월9일)

죄책(罪責)을 지고 주님께로 (3)

吉高 叶 (요시다카 카노우) 목사(일본NCC의장 / 일본침례연맹市川八幡教会)

3. <평화의계명> 을 마음에 새김

(1)성경의계명

우선 <성경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뉘니뉘니 해도 <십계명>이 떠오릅니다.

폭력과 지배의 땅, 노예 지배의 땅인 이집트에서 새로운 세계로 탈출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십계명>.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교제의 모습에 대한 <표본>이었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약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고 인생을 유린하는 세계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나 외에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해서 안 된다>는 계명과, <살인 하면 안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계명은 새로운 생명의 본연의 자세,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도 잃어버리지 않는 <인간 관계>의 기본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 율법에 대해 산상보훈의 설교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문구만을 따라가는, 하나하나의 문구에 대하여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축복과 부르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받아, 참으로 살리는 계명, 스스로를 바치고 사는 삶에 대한 초대로서 예수께서는 <계명>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생명을 만드는 방법, 오늘이라는 날을 만드는 방법에 초대되어, 기도할 때마다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계명으로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용서의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생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갈 방향을 제자들에게 정해주신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15:12).

<계명>이란 엄격한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마지막 만찬을 하신 주 예수님은 깊은 사랑과 각오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폭력과 욕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계명을 주시며 가시는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말씀, 사랑의 계명을 위한 십자가, 그 결의와 각오를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것, 용서, 중보, 기도, 게다가 제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2)어머니의계명

나의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 오이타현(大分県) 오이타시(大分市)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교실에서 아이들을 향해 단 한마디 말씀, <선생님은 여러분을 이 전쟁터에 가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입으로부터 부모에게 전해져, 다음날 마을의 높은 사람들이 학교에 몰려와서 <비국민 교사를 데리고 오라, 불온한 교사를 그만두게 하라>라고 야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눈물을 머금고 학교에서 쫓겨났고 마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어린 나의 어머니와,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4명은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척의 도움으로 멀리 떨어진 마을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금방 소문이 퍼져 다시 직장을 쫓겨나 거기에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실의 속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할머니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뒤를 쫓았습니다.

어린 나의 어머니는 오이타시 교외에 있는 삼촌의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비국민 아이>, <불온한 아이>라고 괴롭힘을 당하고, 삼촌 가족들로 부터도 <너의 아버지가 못할 짓을 한 것 같다>고, 심한 비난의 계속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어머니는 <귀찮은 식구>로 삼촌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힘든 생활을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전쟁입니다. 전쟁의 비참한 한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잔인하다. 인간의 마음에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전쟁은 그것을 끌어내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로 해서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이외의 것에 절대로 얽드려서는 안된다.>고.

어머니의 말씀은 내가 나중에 성인 되어 야스쿠니 문제나 천황제 문제에 임하게 되었고, 또한 반전 운동에 관여하게 된, 나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큰 의지가 되었고 그리고 <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3)역사의계명

제가 소중히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세 번째 평화의 계명, 그것은 <역사의 계명>으로서의 일본국 헌법이며 헌법 9조입니다.

이 나라의 헌법에는 왜 <9조>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일본이 역사적 교훈의 증거로서, 또한 역사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회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망이 가득했던 비참한 전쟁, 2000만 명이 넘는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의 희생자, 오키나와에서의 희생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의 희생자, 빨간 종이로 징집되어 쓰러져간 병사들의 희생, 공습으로 사라진 사람들과 희생 위에, 후회와 사죄의 뜻으로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서약으로서, 드디어 손에 넣은 일본 헌법, 그 심장으로서 9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계명>입니다.

평화헌법의 세 가지 기둥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평화주의>입니다. 즉 일본국 헌법은, <이제 천황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국가의 호령으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한사람 한사람의 말과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민주주의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민주주의(다수결)라 하더라도 밟아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다수결이라도 결코 해서 안되는 것이 전쟁이다. 다수결이라 해도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인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헌법(헌법9조)의 의의와 역할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기속>이며, 아시아 제국가에 대한 <사죄>이며, 재출발하기 위해 세계에 약속한 <공약>이며, 민중과 정부의 <계약>(근대 입헌제)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지침>이고, 상호 안전보장으로서의 <체제>인 것입니다.

한때 나는 한국의 친구로부터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헌법, 좀 더 사용해 보라!>고. 나는 이 평화헌법에 결코 성실한 인간이지 못했고 평화헌법에 대해 일본사회는 배신을 해온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평화헌법이 외치는 것처럼, <결코 폭력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대신에 필요한 <상대를 아는 힘>이나 <다른 의견과도 대화하고 극복하는 힘>을 키우는 노력, 그러한 인간을 키우는 교육에, 전후의 일본이 노력했습니까? 헌법 전문에 적힌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계명> 앞에 겸손했지요?

성실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를 생각합니다. 평화헌법은 인근 국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개정> 한다면 인근 국가의 의견을 듣는 것, 그것이 <성실한 자세>가 아닐까요? 일본의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계속